

##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 -즉각적인 이동제한 및 살처분 조치 취해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 농무부장은 8월17일 자신들의 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주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1,450두가 야생 멧돼지를 통해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브란덴부르크주 정부는 8월13일부터 이 농가 돼지의 이동을 즉각 제한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는 살처분중이어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돼지 이동금지 일부 해제

말레이시아는 니파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각 주 단위로 금지해오던 생돼지의 이동제한을 7월부터 일부 해제했다. 이에 따라 다른 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가 가능해졌다.

작년 10월경부터 돼지를 매개로 한 니파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발생, 1백명 이상의 주민이 사망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1천호 이상의 양돈장에서 1백50만두의 돼지를 살처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염병 발생이 뜸해지자 돼지고기 소매점협회에서는 정부에 전염병 전파를 이유로 폐쇄해온 도축장의 조업 재개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것은 대부분의 돼지고기 소매점에서 작년 이후 수입 냉동 돼지고기를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수송이나 보관시 냉동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협회는 10월부터 페스티벌 시즌이 시작되고, 이 기간에 돼지고기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도축장 가동이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다.

## EU 돼지 사육규모 계속 확대

### -호당 적다 사육두수는 아일랜드로 818두

EU(유럽연합)는 돼지 사육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호당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밝혀졌다. EU 통계국은 최근 97년 11/12월 현재 EU의 가축 사육규모별 농가호수와 두수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EU의 돼지 사육농가는 1백 13만3천호, 사육두수는 1억2천1백95만3천두로 호당 평균 105.8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2년 전인 95년보다 13.5두 증가한 것이다.

호당 사육규모는 폴란드가 18.2두로 가장 작고,

아일랜드가 817.6두로 가장 크다. 또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남부 지역의 나라들은 규모가 작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덴마크 등 북부 지역의 나라들은 규모가 더 커졌다.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 덴마크에서는 20% 이상의 농가가 1천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200~999두 및 1,000두 이상 규모에서 착실히 증가하고 있는데, 1,000두 이상 규모에서 전체 돼지의 52%를 사육하고 있다.

## 일 금년 7월까지 돼지고기 수입 38% 본 증가

### -덴마크 전년 동기비 117% 늘어

일본 대장성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들어 7월까지 일본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9% 증가한 366,579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국별로는 덴마크로부터 가장 많은 119,865톤(32.7%)을 수입했고, 미국 94,506톤(25.8%), 캐나다 52,186톤(14.2%), 한국 47,547톤(13%), 멕시코 21,406톤(5.8%) 순으로 수입했다.

덴마크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7.4%나 많은 양을 일본에 수출했고, 미국이 3.9%, 캐나다가 54.6%, 멕시코가 22.5% 각각 수출물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98년에 일본시장 점유율 17.9%로 3위의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던 우리나라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5.1%나 수출량이 줄어들었고, 수출 순위도 3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 <표1>

<표>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실적(1~7월) (단위 : 톤, ( )안은 전년비 %)

구 분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 국	멕시코	합 계
냉장육	143	62,588	14,370	12,163	3,154	93,563
냉동육	119,722	31,918	37,816	35,384	18,252	273,016
합 계	119,865 (217.4)	94,506 (103.9)	52,186 (154.6)	47,547 (94.9)	21,406 (122.5)	366,579 (137.9)

## 10월 이후 돼지가격 큰 폭 하락 예상

일본은 10월 이후 돼지 출하두수 증가로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국은 최근 금년도 하반기 돼지가격 예측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8월말부터 9월까지의 일본 전통 명절인 보름과 소비증가로 500엔 전후의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에는 400엔 전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1월에는 400엔대에서 더 떨어진 350~390엔 정도까지 하락하고, 12월에는 전년 수준보다 상회한 400엔 전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항생물질 등 4품목 잔류허용기준 새로 설정

### -돼지고기내 테트라사이클린류 허용 기준치 0.2ppm

일본은 8월31일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등 테트라사이클린류(항생물질)와 항콕시든펜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식육내 잔류허용기준치를 새로 설정했다. 이중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테트라사이클린류의 돼지고기내 잔류허용기준치는 0.2ppm으로 설정되었다.

## 미 미국산 돼지고기 최대 수입국은 일본

미농무부는 최근 1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 육류를 수입한 나라의 통계를 발표했다. 미농무성에 따르면, 미국은 상반기중 일본에 102,491톤(부산물 포함, 약 3억2천2백만달러)의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했다. 이어 멕시코에 48,768톤(약 6천9백만달러)을 수출했으며, 이어 캐나다와 대

만, 중국, 한국 순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한국에는 9,891톤(약 1천8백만달러)의 돼지고기를 수출, 여섯 번째로 많은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한편, 미국은 이 기간중 일본에 255,348톤(8억3천2백만달러)의 쇠고기를 수출했으며, 멕시코 92,778톤(2억2천5백만달러), 한국 48,835톤(1억3천6백만달러), 캐나다 47,663톤(1억3천4백만달러)의 순으로 쇠고기를 수출했다.

### 돼지 육가공업체 흑자 기록

미국의 돼지 육가공업체들이 금년들어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돼지고기 전문 생산 팩커인 스미스필드사는 지난 7월말 현재 690만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스필드사의 이같은 흑자 달성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53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이다.

스미스필드사의 흑자 실현은 돼지고기 생산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낮은 사료가격으로 인해 수익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올해 스미스필드사의 돼지고기 생산 분야의 영업이익은 160만달러로 작년의 750만달러의 영업적자와는 상당한 대조를 나타내는 실적이다.

### 아르헨티나 돼지 사육두수 큰 폭 감소

아르헨티나는 최근 수년간 돼지 사육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저렴하고 풍부한 곡물을 이용해 돼지고기 생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의 돼지 사육두수는 78년에 4백만두였으나, 88년에 2백60만두로 감소한후 현재는 2백20만두이다. 98년의 돼지 도축두수는 1백78만두로 전년에 비해 약 20% 늘어났으며, 이중 80%

가까이가 거세돈과 미경산돈이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금년도 돼지 도축두수는 2백10만두, 지육 생산량은 19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돼지 도축두수는 60만두로 전년대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 98년 돼지고기 수출량 77만톤

최근 발표한 네덜란드 축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98년에 76만8천톤의 돼지고기(베이컨 제외)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지고기는 18만톤을 수출했다. 네덜란드는 작년에 1백25만두의 비육돈을 수출했다.

네덜란드의 돼지 사육농가수는 19,345호로 전년대비 7.9% 감소했는데, 사육두수는 13,445,866두이다. 연간 도축두수는 19,277,000두로 전년대비 25.9% 증가했다. 연간 2만5천두 이상 도축하는 도축장은 26개소이며,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은 독일 39%, 이탈리아 24%, 프랑스 9%, 그리스 8%로 나타났다.

### 중국 미국과 WTO 가입 협상 재개

중국은 지난 5월 나토군이 유고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사건 이후 중단되었던 WTO 가입협상을 9월5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리처드 피셔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에 따르면, 다음 주에 북경이나 APEC회담(9.12-13)이 열리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양국간의 WTO 협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자급 회의를 열기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빠른 시일내에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공식협상의 기반이 마련되어, 클린턴 미 대통령과 장즈민 중국 주석의 공동발표문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차기 WTO 협상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11월말의 시애틀 각료회의 이전에,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 이외도 EU측과도 역시 시장접근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국의 차기 WTO 가입이 시간에 촉박한 상황이다.

## 세 금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 0.9% 증가 계 예상

### '99/2000년 5억9천9백41만톤 추정

농림부가 8월 발표한 세계 주요곡물 수급동향에 따르면, '99/2000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아르헨티나, 남

아공, 브라질 등의 증산으로 '98/99년보다 0.9% 증가한 5억9천9백41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5억9천1백79만톤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7백62만톤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고량도 전년보다 8.2% 증가한 1억4백92만톤으로 재고율은 17.7%를 전망. FAO 권장 재고율(사료곡물) 1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던 지난해보다 2.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도의 생산량 증가로 이월량이 많아 재고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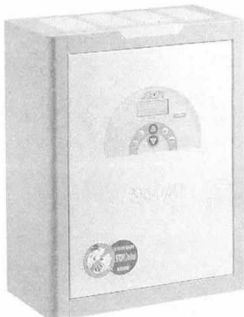
# 정부 전력 신기술지정 1호 최첨단 전기안전 절전제어 장치

## ◎ 인증사항

- 정부(산업자원부)사용권고(판보발송)한국 전력 기술인협회 사용권고(전력협)
- 품질보증업체 지정서 'Q'마크 획득·벤처기업 확인서 획득(중소기업청)
- 공인기관 시험완료(한국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 언론보도 극찬(신문·방송)
-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지에 수출상담/수출의양서 체결함

## ◎ 주요 설치·설계 현황

- 관 공 서 : 서울특별시 정부(조달청)
- 공공기관 : 서울지하철공사의
- 교육기관 : 서울성동교육청외
- 일반업체 : 현대전자, 삼성중공업, LG, 이수세라믹외 상기사례는 제1세대 ESS(I)장치로써 1998. 3. 31일 현재 238개 업체가 설치하였으며 1998. 6월 이후 납품 설치되는 ESS(II) ESSCOM 장치는 정부전력 신기술에 의한 2세대3세대를 구현함.



### ESSCOM 신기술 가지

1. 전기위험 안녕!
2. 전력의 효율적 이용!
3. 전기 제품 및 조명등의 수명 3배 연장!
4. 문제 원인 한눈에 확인!
5. 최첨단 신기술 응용!
6. 자기진단 및 보호기능!
7. Y2K문제 근원적 해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산업자금 90%지원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5.5% (에너지 관리공단)

### 제품 구입 문의처

**미래에스컴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대오빌딩 14층)

### 본사전화 (02)780-3226

FAX(02)780-0479 휴대폰(011)214-2718  
담당 : 최 주

기종	모 델	
단상 (220V)	6KVA~25KVA	ESSCOM Home/BIZ
3상 (380V)	9KVA~120KVA	ESSCOM Pro

전기안전의 절대강자 "에스컴" 이 귀하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